



중흥건설그룹 택지개발사업 최강자로 우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이 지역 중심 배후도시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명품도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 1만여 세대가 입주했고, 500여 세대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이곳에서 택지개발뿐 아니라 공동주택용지 9개 필지에 1만6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했다.

중흥건설그룹이 사업 전반을 진행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는 300만㎡에 달하는 거대 신도시로, 1만1천 세대에 3만명 정수 인구의 국내 최고 친환경 도시로 개발됐다. 이곳은 인근 산업단지와 순천, 여수, 광양 등 주변 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조로 현재 전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손꼽힌다. 각종 문화 인프라와 다양한 주거·편의 시설을 갖춘 명품도시로 탄생했다. 또 '투자유치-기업입주-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주변 도시와 산업단지로의 직주근접 환경을 제시했다.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순항

경기도 최대 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되는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브레인시티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약 482만㎡ 규모에 첨단산업단지, 대학, 주거·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가 이뤄져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지급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약 1조2천억원(93%)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단지 조성공사도 작년 7월 착공 이후 약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 산업시설 170만㎡ ▲ 주거시설 84만㎡ ▲ 공공시설 208만㎡ ▲ 지원시설 11만㎡ ▲ 상업시설 18만㎡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단계(약 145만㎡)는 평택시 산하 공기업인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산업시설 용지로 개발한다. 이어 2단계(약 336만㎡)는 중흥건설그룹의 중흥토건과 평택도시공사 등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에서 공공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용지 등을 조성한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고속도로 5개, 국도 5개, 철도 5개가 인접해 있고 인천공항(72.7km), 김포공항(63.6km), 청주공항(50.7km), 평택항(24.8km), 인천항(64.2km) 등 주요 공항·항만도 2시간 거리에 있다. 특히 직선거리 2km 이내에 수서고속철도(SRT) 지체역이 있어 서울 강남까지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중흥건설그룹의 총사업비는 3조5천억원에 육박한다. 주택공급 면에서도 대형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장해온 중흥건설그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또 다른 건설신화를 쓰고 있다. ●

평택을 넘다 미래를 담다

평택 브레인시티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의 메카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택!
최고의 입지조건과 최상의 산업단지로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풍부한 비즈니스 인프라

- 주한미군이전 및 대중교통을 통해 국제도시로 성장·발전
- 환황해 경제 중심의 평택항을 이용한 국제경쟁력 제고



국내 최대 산업벨트

- 국내 최대 350만평(1,155만㎡) 규모의 산업벨트
- 철교·장당·송탄·고덕·진위1, 2 산업단지 등 반경 4km '동반상승 시너지' 효과



눈부신 투자가치

-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100조원 투자 - 고덕산업단지 내
- 삼성전자협력업체 및 기타관련업체 입주 - 지역경제 선도할 첨단산업단지 조성



최상의 주거환경

- 수도권 남부의 중심, 프리미엄 생활환경 조성
- 교육·의료·연구·상업시설 등이 연계되는 차별화된 주거환경